

## [ 오피니언 ]

## 테마칼럼

공간과 일상

문화와 경기

디자인 시장

과학과 향토



천득염

“

현대에 들어서면서 문이라는 건축요소는 상징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형태로서 존재한다. 광주의 관문은 광주다움이 조형적으로 놓축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문화수도의 얼굴 광주 톨게이트

고속도로를 타고 광주에 이르면 먼저 톨게이트가 반긴다. 모습이야 어떻든 이제 엄마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곳에 왔구나 하는 느낌에서 웬지 포근하다. 그러나 광주의 얼굴이 톨게이트가 과연 예상 광주에 걸 맞는 모습일까? 어디에서 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형태, 조형적인 아름다움도 지역적 상징성도 찾아 볼 수 없는 모습이다. 광주의 관문은 광주다움이 조형적으로 놓축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톨게이트는 위치 및 형태적 특성상 지역의 관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조형성이 큰 건축물이다. 그러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디자인으로 인한 공공 시설물로서의 가치, 즉 상징성이 조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80년대의 경제논리는 표준설계도에 의해 어느 곳이나 같은 모습으로 도시의 관문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현재 고속도로망은 씨줄처럼 엮여 있어 우리의 국토를 빙나길의 생활권으로 연결해주고 있으며 전국에 261개소의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다. 수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도로를 이 선진국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장차 고속도로가 신설될 가능성이 많고 결국 톨게이트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물리적 공간을 드나드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대문을 두었다.

대문은 형태나 위치, 기능에 따라 다양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집안에 잠귀가 대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인식 때문에 유독 주술적인 벽사풍습이 많았다. 호랑이 뱠를 걸기도 하였고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금줄을 거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성문은 적을 압도할 수 있도록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였고, 양반집의 솟대문은 4인 가마가 드나들 정도로 높고 넓게 하여 집주인의 신분을 나타내었다. 향교나 서원의 초입에는 흥실문을 두었고 사찰에는 일주문을 세워 성스러운 경례를 표시하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개선문을 만들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였다. 이를 흉내내어 나폴레옹을 비롯한 독재자들도 경쟁적으로 거대한 문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월드컵을 계기로 서구적인 타원형이 아닌 원의 형태를 도입한 현대의 문을 계획하였으나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여 건립되지 않았다.

톨게이트는 통행료를 수집하는 일차적 기능을 하지만 도시의 관문으로서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다. 짧은 순간에 지나치면서 인지되지만 미전달 기능을 가진 기호로서 역사성과 지역성, 문화적 역량을 표출할 수 있다. 전주와 경주는 전통문화도시답게 한옥형으로 되어 있고 무안은 양파와 연꽃을 상징하고, 대전은 육해공군의 본부를 상징하고 있지만 다른 도시들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 같다. 중국은 목조건축형식을 즐겨 따르고, 프랑스는 곡선형이 많은 반면 일본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가 대부분이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문이라는 건축요소는 상징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형태로서 존재한다. 관광산업의 발달과 함께 도시의 문은 지역의 문화적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노리게 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의 특징을 현지인과 국민에게 상세히 알림으로써 현지인에게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외지인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광주톨게이트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형태와 재료, 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상징성이 우선한다면 어머니와 같은 무등산, 예향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도시, 절의 종묘를 중요시 하는 민주언론도시, 관산읍을 주도하는 첨단도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도시로 대변되는 모습이 추상화되어야 한다. 문화도시 광주는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낸 백락과 미적 경관을 중요시한 멋있는 현대적 디자인으로 개선되어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lt;전남대 교수, 문화재위원&gt;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친환경농산물 인증체제가 '엉터리'라니

엉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관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조차 하지 않고 제대로 인증서를 발급해온 민간 친환경인증기관이 적발된 것이다. 자체 체가 주는 보조금에 눈이 멀어서다. 인증 업무를 민간 위탁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만 보내는데 그쳤다. 전남도는 올해 무농약 이상 인증 면적을 전체 농지의 40%까지 확대하라고 시·군을 독려하는 등 실적에 급급했다. 품질 제고보다는 양적 팽창에 치중해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될 때까지 방치한 셈이다.

광주지검이 어제 사법처리한 인증기관의 수법은 충격적이다. 광주·전남지역의 민간 인증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이 기관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증 심사를 제대로 한 것처럼 속여 전남도내 19개 시·군으로부터 4억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쟁쳤다고 한다. 검찰조사 결과, 직접 만든 작목반에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아무런 심사도 없이 인증서를 주기도 했으며 자체가 없는 심사원도 있었다. 검찰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기관 대표 등 입원 6명 중 4명은 전직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이었다.

## 지역사회 힘모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광주시의 비경제활동인구가 47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 조사 결과, 실물경제 침체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1년 새 1만여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지역 고용시장이 당분간 개선될 전망이 없다는 점에서 큰 일이다.

고용시장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 지난달 광주의 실업률은 3.8%로 전국 평균 3.0%를 크게 웃돌았다. 울산, 대구에 이어 전국 세번째다. 광주는 지난 5, 6, 7월과 9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고령자와 학생 등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감안하면 죄악이나 다름없다.

특히 광주의 청년실업률은 8.6%로 전국 평균 6.6%를 2%포인트 상회했다. 젊은층이 구직을 포기하면서 근로 의욕을 잃고 '청년 백수'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침체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고 보면 고용난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전례없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본격 전이되면서 고용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는 '백수'들이 126만6천명에 달하는 현실이 정상일 수는 없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광주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광주시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제 '지역경제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광주시와 경제계, 노동계 등이 힘을 모아 실업률 '상위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 無等鼓

최근 아시아에서 전직 최고 권력자들의 '수모'가 이어지고 있다. 대만 겸찰은 지난 12일 정부 비밀자금인 '국무 기요비' 유용과 혜의 돈세탁 혐의로 천수 이벤(陳水扁) 전 총통을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했다.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수감되는 장면이 실린 신문 외신판을 지켜본 이들은 그가 8년 전 '대민의 희망'에서 파렴치한 부패 권력자로 전락했음을 알게 됐다.

역시 부패 혐의로

쫓겨났던 탕신 친나와 전 태국 총리는 국제 미아가 될 신세다. 비리를 저지른 후 영국으로 도피했다가 망명을 신청했지만 비자가 취소된 데 이어 필리핀에서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탕신 전 총리와 부인 포자만 씨는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개입해 공직자 및 배우자가 국가와 계약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 반부패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탕신 전 총리와 그 가족들 명의로 된 재산은 760억 바트(약 2조3545억 원)로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에서 금권정치가 관치던 1976년 당시 다나카 가루에이(田中角栄) 총리는 이른바 '록히드 스캔들'로 구속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록히드사로부터 5억엔에 달하는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밝혀내 혼직이던 다나카 전 총리를 전격 체포했다.

아시아 최고 권력 부부 펠리핀 마르코스와 이엘라 부부를 빼놓을 수 없다. 1965년 대통령이 된 후 장기독재 한 마르코스 일가가 해외로 빠져들린 부정축재 금액은 1986년 당시 펠리핀 외채규모와 맞먹는 100억달러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전두환, 노태우 전직 두 대통령이 저지를 부패 또 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끊임없는 최고 권력자들의 부패는 '청권론'(淸權論)을 되새기게 한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권력자는 청권(淸權)이 돼야 하고, 재벌은 청부(淸富)가 돼야 하며, 관리는 청관(淸官)이 돼야 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박지경 체육·어론매체부장unipark@

## 의료 칼럼



임선택

'날이 갈수록 눈이 침침해진다', '뭔가 앞을 가린 듯 뿌옇다', '눈앞에 작은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 '밝은데 나가면 너무 눈이 부시다'

망막질환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당뇨망막증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이다. 망막을 전공한 의사들은 이 같은 하소연을 수십 번 들어야 하루가 끝난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 수는 근래에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당뇨병의 후기 합병증인 당뇨망막증 환자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그 상황을 다시 구성해봤다. 눈을 들여다보고 검사결과들을 헤어보던 의사의 얼굴이 자못 심각해진다.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이란 게 당뇨로 인해 많이 놓쓰게 끼버렸단다. 빨리 레이저 치료를 해야하고 안하면 실명할 수도 있단다. 그런데 레이저하고 나면 더 침침해 보이기도 하고, 밤눈도 어두워지고, 시야도 좁아져서 운전하기도 쉽지 않단다. 의사라는 자작은 날 이야기하듯 쉽게 말하지만, 이제 겨우 미흔 중반인데 남편 생각 애들 생각에 갑자기 설움이 북받쳐온다. 그리

## 당뇨의 무서운 친구 '당뇨 망막증'

유엔(UN)도 당뇨병의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매년 11월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로 정해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 환자를 진료하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 동갑내기인 여자 환자가 다른 안과에서 심한 당뇨망막증으로 진단받고 망막레이저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다. 레이저 치료의 필요성과 부작용, 시술 후 주의할 점 등을 설명하고 레이저 치료실로 환자를 안내한 뒤 잠시 자리에 비웠다가 돌아와보니 환자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다.

순간 마음이 뜨끔했다. 아! 내가 너무 따딱하게 사무적으로 말한 것일까. 매일 하는 레이저 치료에 항상 하는 수술이지만 환자에게는 처음으로 겪는 일인데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눈을 수술하는데...

레이저 치료를 마치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전한 뒤 환자입장에서

&lt;이연안과병원 원장&gt;

## 기고



박인종

단종으로 물들어 가는 가을은 광주시민을 칭명한 하늘과 울긋불긋한 산의 색깔을 만끽하는 산행으로 이끈다. 많은 시민들이 무등산을 비롯한 도시근교의 가을산을 찾는 것도 때문이다.

상쾌한 가을 바람결을 느끼는 산행은 자연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11월~12월은 마른나염이 산에 많이 쌓이는 시기로 시민의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을 발생시키는 계절이다.

산불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초기진화가 매우 긴요하다. 산불 발생시는 지체 없이 산림관서, 소방서, 경찰관서로 신고함으로써 진화 전문인력·장비가 투입되어 초기진화가 가능하며, 산불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자. 성공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네.

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아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삼가야 하고,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소각행위도 금지사항이다.

산불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초기진화가 가능하지만, 산불 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산림관서, 소방서, 경찰관서로 신고함으로써 진화 전문인력·장비가 투입되어 초기진화가 가능하며, 산불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자. 성공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네.

산불은 산에서 담뱃불을 버리거나, 성묘 시 회기부주의, 취사행위 등과 산림연접지의 논·밭두렁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우리시의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 발생원인은 입산자

으로부터 외국인 친구는데 대가 지불... 한국인 이미지 훼손

鄙는 표현과 '모양'을 '모냥'으로, 변형시켜 쓰고 있다. 또 'King of 대단', '막춤 대작렬'과 같이 외국어와 한자를 섞어서 표현하는 사례도 허나하다. '오랫동네'·'어쨌든' 말이 안돼죠' 식의 잘못된 표기도 다반사다.

방송 자막이 우리의 언어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다. 하지만 잘못된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됨으로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지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된 표현을 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우리의 아름답고 견전한 말을 살이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현재의 TV자막은 방송사에서 알아서 걸려주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유용학·광주시 서구 덕흥동

으로야 외국인을 사귀면 영어학습에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아무리 생 각해 봐도 옳지 않다. 사람을 사귀는 일에 목적을 가지고 조건부로 사귀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일뿐더러 자칫 한국인의 이미지까지 훼손할 수 있다.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영어권 남녀를 친구로 사귀고 그걸 개인교사로 활용하고 은근히 자랑거리로 여기기까지 한다니 참으로 각박하고 쓸쓸하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이 영어벌레로 여겨지지 않도록 이런 행태는 삼가자. ▲정정환·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시국·국제신문·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부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문화 흥 보 국 2200-541 (F A X 2